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홉번째인 93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2백82편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20편, 장려 50편 등 총 7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키로하고 이번호에는 최우수상, 금상 2편, 은상 3편을 실는다.

최우수상

고마운 우유

김형주

(인천부평국교 4-3)

내 나이는 11살

11년동안 마신 우유를 생각해봤다.

물처럼 마셔대니 어마어마 할거다.

할머니께서는 목장을 지날때 젖소들을 보시며
'형주야! 네 젖엄마 저기있다.

인사 해야지?', 하시며 놀리곤 하셨다.

난 김포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때에는 아궁이에 불을때서 밥을 해먹고
석유곤로로 찌개 끓이고 하셨단다.

지금은 할머니댁도 도시처럼 편하지만 집안도
넉넉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아빠가
농사 지으셨기 때문에 분유 먹인다는것은 생
각도 못했다고 하셨다.

내가 태어 났을때 황달에다 엄마 젖은 물젓
이라 먹기만 하면 설사가 심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애기는 엄마젖을 먹고 잘랄수 없다'고 하
셨단다.

그때부터 엄마의 고생은 시작되었고 난 분유
덕분에 설사도 않고 무럭무럭 우량아로 자랐
단다.

우유병을 일곱개씩 소독해놓고 사용했고 시
골이라 분유 사기가 힘들어 몽땅 몽땅 사다놓고
먹였단다.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께서 우유를 먹일때면
할머니는 우유온도 알아보려고 젓 꼭지를 쪽
쪽빨고 나를 먹였는데 엄마는 그것이 마음에
안들어 할머니께 말씀도 못드리고 끄끙거리기도

하셨지만 난 이렇게 건강하다.

우리 아빠는 키가 165cm로 작은 편인데 난
우리 아빠 팬티도 같이 입는다.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클정도다.

내가 싫어 하는건 엄마가 시험점수 때문에
야단 맞힐때 '미련한 소처럼 왜 눈을 껌뻑껌뻑
거리냐?'고 하실때다.

왜 소가 미련한가?

엄마는 소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크게 키우
시는데 그리고 공부는 보통이지만 글짓기, 그
림상은 많이 받았고 이 다음에 커서 미술대
교수며 화가가 될려는 아들을 껌뻑껌뻑 댄다고
하시니.

할머니께서는 내가 김씨 집안에는 큰사람이
없는데 우유먹고 자라 큰가 하신다.

나도 키 작은것이 싫어 그소리 들으면 더
마신다.

마셔도 마셔도 질리지 않는 우유.

난 젖소들이 고맙고 좋다.

젖소들의 눈은 껌뻑껌뻑이 아니라 깨끗한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금상

고마운 우유

신수희

(서울동자국교 4-3)

우리 반 아이들이 가끔씩

“신 돼지!”

하고 놀리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다들때도 있는데, 이제는 놀리지 않습니다. 선

생님께서

“친구를 놀리는 어린이는 혼내 주겠다. 모두 사이좋게 놀아라”

하셔서 아무도 놀리지 않습니다. 나는 2학년 여름까지 몸도 야위고 키도 작아서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우유도 가끔씩 초코 우유만 사먹고, 집에 배달오는 우유는 언니와 오빠가 마셨습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아서 학교 우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수희야, 이 우유 마셔라. 우유를 많이 마셔야 키가 많이 큰단다”

하시며 우유 마시는 시간에 우유 한개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유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주셨기 때문에 천천히 마셨습니다. 우유가 고소하고 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엄마 같았습니다. 집에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 우유 한개 주셨는데, 우유 많이 마셔야 키가 많이 큰대요. 다음번에 학교 우유 마실래요”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터 집에 배달오는 우유도 꼭 마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우유 마시기전에 마른멸치를 우유와 함께 먹으라고 주십니다. 나는 가끔씩 거울앞에 서서 벽에 기대고 키재기를 합니다. 어떤 날은 발뒤꿈치를 높이들고 거울을 보면 키가 무척 많이 큰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사람들이 나보고

“물오이 크듯이 많이 컸다”고 합니다. 2학년 때까지 맨 앞줄에 앉았는데, 3학년때는 중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어서는 뒤에서 두번째 앉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 배달오는 큰 우유말고도 자주 우유를 사오셔서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우유가 우리 삼남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수희가 우유를 많이 마시니까 언니 키 쫓아가겠네. 잘 먹으니까 병원 안 가서 좋아” 하셔서 모두 웃었습니다. 언니는 중학교 2학년인데, 내 키는 언니 귀까지 갑니다. 지난 여름 방학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김밥을 싸가지고 삼각산

산기슭으로 가족 소풍을 갔습니다. 유원지 입구에서 시원한 우유 네개를 사고 음료수도 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원지쪽 말고, 왼쪽 계곡 옆에 자리를 잡고 점심 먹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가에 가서 손을 씻는데 할머니 두 분이 길가 숲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시다 “어디서 왔니? 너 복스럽게 생겼다” 하셨습니다. 나는

“자양동에서 왔어요”

하면서

“할머니는 누구랑 놀러 오셨어요?” 하였습니다

“응, 우리는 놀러 온게 아니고 저기 양로원에서 산다”

하시며 산기슭에 있는 큰 집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손을 씻고 돛자리 있는데 가서

“엄마 저기 계신 할머니 두분이 저위의 양로원에 사신대, 내 우유 갖다 드릴까요?”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김밥을 덜어서 우유 두개하고 갖다드렸더니 두 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시면서

“아이들 먹는 우유를 받아먹어서 어찌지?” 하셨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할머니 많이 잡수셔요. 저는 우유 매일 먹어요”

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양로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녁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버스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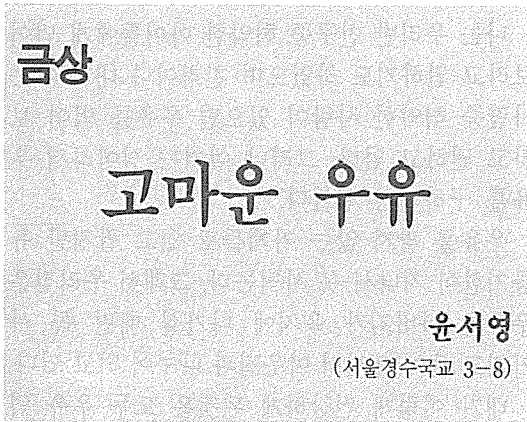
“엄마 다음에 또 와요.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들한테 빵과 우유 많이 사가지고 와서 나누어 드려요”

하였더니 어머니께서

“그럴려면 군것질도 하지 말고, 저축하고 뭐든지 아껴써서 절약해야돼” 하시면서 동네에 오셔서 돼지저금통을 두개 사셨습니다. 하나는 내 책상위에 그리고 하나는 식탁위에 놓고 아침 식사때 마다 오백원씩 넣고, 어머니께서 시장 다녀와서 잔돈을 넣을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반밖에 차지 않았습
니다. 한달 후에 돼지 저금통을 뜯으면, 나는
어머니하고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들 한테 우
유를 많이 사가지고 가서 할머니들께 나누어
드리고 기쁘게 헤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
지께서

“인정 많은 우리 토실이가 복많이 받겠다”
하셔서 나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요즘도 우유를
들고 기뻐하시던 두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빨리 양로원에 가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셋이서 삽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갓난아기였을때, 병환으로 돌아가
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얼굴도 모릅
니다. 며칠전이었습니다. 학원선생님께서

“애들아,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가 있단다.
누구든지 열심히 써서 내기바란다.”
하시며 제목과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집에와서

“할머니, 우유에 대해서 글짓기를 하했는데,
우유에대한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들려주세요”
하였더니 할머니께서 금방 슬픈 표정을 지으
시더니

“서영아, 귀여운 내강아지야 너는 우유가 없
었으면 큰 일 날뻔했단다. 네 엄마가 갑자기
죽어서 너는 젖도 못먹고 울어대기만 했는데

우유를 먹이니까 처음에는 안먹으려고 하더니,
잘 먹더라. 우유가 얼마나 고맙니? 다른 사람
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를 사다 끓는물에 타서
먹이라고 하는데, 할미가 할줄을 몰라서 우유를
그냥 젓병에 부워서 주니까 잘 먹더라.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지”

하시면서 나의 등을 토닥겨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우유를 사오
거나 할머니한테 우유값을 건네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다리도 신경통 때문에 멀리 다니지도 못합니다.
지난 2학년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몸살이나서
서 누워계셨습니다. 나는 내 용돈으로 가까운
약국에 가서 몸살 약을 하루분 짓고, 약국아저
씨한테

“아저씨, 할머니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많이 잡수시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쭙었습니다. 약국 아저씨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세끼 밥 잘 잡수시고, 매일 우유 두잔씩 마
시면 아주 건강하단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저씨 고맙습니다”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주는 우유를 그냥 가지고 집
으로 와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왜 안마시고 가지고 왔니? 뭐든지 많이
먹고 많이 커야지”

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 입에다 우유잔을 갖
다대면서 “할머니가 많이 잡수시고 아프지 말
아요” 하였더니 할머니께서는 우유잔을 받아서
방바닥에 놓고 나를 껴안고 우셨습니다.

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한테 나를 효녀라고 칭찬하
셨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아빠, 집에서 할머니 우유 시켜요. 약국 아
저씨가 그러는데 하루에 두잔씩 마시면 건강
하대요”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

를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글짓기 상탈때 처럼 기뻐했습니다. 그후로 우리 가족은 우유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돈 벌어오는 아빤이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셋이서 우유 한 잔씩 마시고 한참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또 2학년때 내 짝꿍은 나처럼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우유를 먹지않습니다. 나는 하루는 내 짝꿍에게 우유를 주고, 다음날은 내가 먹고 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짝꿍을 좋아한다고 놀렸습니다. 나는 매일 반컵씩 짝꿍과 나누어 마셨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아시고 칭찬해주셨습니다. 다음날 부터 선생님께서 내 짝꿍에게 선생님 우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우유인데 자기들도 선생님이 주는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내 짝꿍이 매일 우유를 마시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우유를 많이 먹고 얼른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우리 할머니께 효도를 해야겠다고 다짐 하였습니다.

은상

고마운 우유

김종명

(충남보령원산국교 5-1)

나는 몸이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편을 갈라 놀때도 꼭 나 때문에 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같이 잘 어울리지도 못 하였다.

그런 날 보고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태산같

았다. 그래서 보약을 지어주셔서 먹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께서 우유 한상자를 가져오셨다. 외삼촌이 우유를 샀는데 외삼촌 아들이 잘먹지 않아서 주신 것 이라고 하셨다.

처음에 나는 우유가 비린것 같아 먹지 않았는데 누나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먹고 싶어 먹어보니 처음 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먹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우유가 아주 맛있다. 그러더니 허약 했던 내가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 그래서 어머니도 무척 기뻐 하신다.

나는 우리반 친구중 허약한 아이들에게 먹여 보라고 권하기도 하였으며 친척이나 내가 아는 사람중 허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유를 먹어 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는 섬이라서 우유를 구하기가 힘들다.

우유를 팔지 않는 가게들도 있고 팔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사먹는다. 그래서 우리집은 우유를 아버지가 육지에 나가실 때면 꼭 사가지고 들어 오셔서 이웃집과 나누어 먹고 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것은 모두 우유 덕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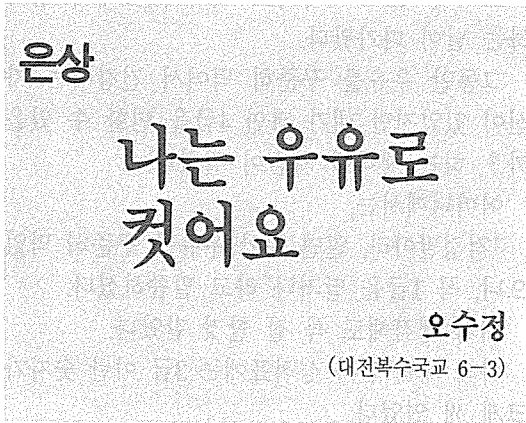
나는 가끔 내가 우유를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때 마다 나는 우유에게 고마운 생각을 갖는다.

나는 우리 집이 젓소를 한 마리 사서 길러 우유를 짜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육지까지 나가서 사오지 않아도 되고 이웃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유의 고마움을 알고 앞으로도 계속 우유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크면 목장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나는 우유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널리 보급 되어 그나라 어린이 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 해야 겠으며 우리 나라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학교에 다녀 왔어요”
 “오 그래? 수정이 왔구나. 어서 씻고 숙제 하렴”
 어머니의 말씀엔 아랑곳 않고 난 책가방을 현관에 벗어놓고 아기방으로 들어 갔다
 “요셉, 누나 왔어”
 내동생 요셉은 누워서 우유를 먹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반가운듯 우유병을 입에서 빼고 빙긋이 웃었다. 난 요셉이가 우유먹는 시간을 거르면 건강에 큰 지장을 줄것같아 아기를 안아서 우유를 먹였다. 요셉은 맛있는지 쪽쪽 소리를 내며 우유를 먹고 있었다.

막내인 요셉은 태어날때 부터 미숙아였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랐다.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께

“늘그막 얻은 아들이 왜 이모양이고 쫓쫓쫓.....”

하시며 혀를 꼰꼰 차셨다.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대로 젖이 부족하셔서 모유를 먹이실 수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는 분유를 먹다가 요즈음은 우유를 먹고 있다. 요셉이가 특별히 우유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기는 잠이 들어있었다. 난 요셉을 내려 놓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께서는 책을 읽고 계셨다.

“엄마! 요셉이랑 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우유귀신이라고 불러요”

“우유귀신이라니?”

“우유에 걸신들린 귀신이요. 전 우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읽던 책을 덮으시고 말씀하셨다.

“수정아? 너도 태어났을때 엄마의 젖이 너무 부족했어. 그래서 너를 우유로 키우기로 결심했지. 그결심을 너의 외할머니께 알렸더니 한사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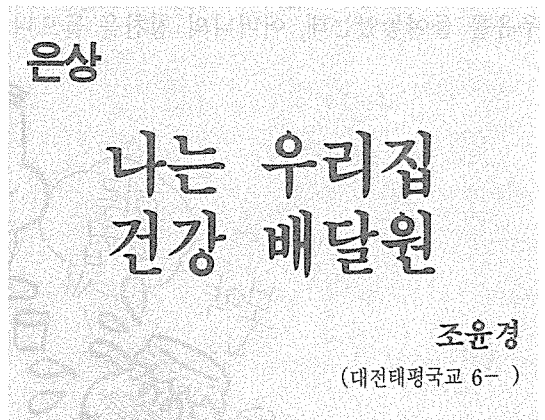
‘사람은 사람젖을 먹여야지 소젖을 먹이면 건강에 나빠서 안돼’

라고 반대 하셨단다.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우유를 먹였고 할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너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단다. 반대를 하셨던 할머니께서도 건강하게 크는 너를 보고 기뻐하셨고”

어머니의 말씀이 끝났다. 나는 우유에도 모유못지 않은 풍부한 영양이 들어 있다고 깨달았다. 난 자랑스럽게 마음 속으로 소리쳤다.

‘난 우유로 컸어요! 그래도 전 이렇게 튼튼하다구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놀이도 그래 그래하며 방긋 웃어 주었다.



나는 우리 집의 ‘건강 배달원’ 이다. 매일

아침마다 현관 밑에 놓여진 우유를 가져다 놓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붙여주신 나의 별명이다.

나의 별명은 작년 체력 검사 때부터 붙여졌다.

체력 검사의 성적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다. 체력 등급 중에서 두번째로 낮은 4등급이 나의 성적이었기 때문이다.

“윤경이는 체육이 좀 떨어지는구나, 우유를 많이 먹어야겠다”

어머니께서는 내일 부터 우유를 받아야 겠다고 말씀하셨다.

저녁에 아버지께 나의 체력 검사 성적과 우유를 받아야 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래, 우유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도 튼튼해지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하시며 다음 체력 검사때에는 꼭 1급을 따내라고 격려해 주셨다.

다음날 부터 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관 밑에 놓여진 우유를 식탁에 가져다 놓았다.

이제 막 갖다놓은 신선한 우유를 마시고 눈을 감으면 푸른 농장에서 젖소의 젖을 짜는 풍경이 펼쳐졌다.

“우리 윤경이가 아주 부지런해진 것 같구나. 우유가 우리 집의 건강을 지켜주니 윤경이는 ‘건강 배달원’이라고 해야겠다”

체력 검사에서 1급을 받고 싶은 욕심에 매일 우유를 들여놓았는데, 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좋았다.

이렇게 우유를 먹은지 1년.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체력 검사하는 날이 다가왔다.

그동안 우유를 꾸준히 먹어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내가 과연 4급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어머니께서는,

“걱정말아라. 일년 동안 우유를 꾸준히 먹었으니, 꼭 1급을 딸거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해도 꼭 잘 할것 같았다.

나의 체력 검사 성적표에는 3급 이란 숫자가 크게 써 있었다.

“어머니, 저 3급 이에요!”

“그래 잘 했구나. 우유 먹은 보람이 있지?”

“네!”

저녁에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는 윤경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우유를 먹어야 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을 건강 가족으로 만들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난 오늘도 우유 세 개를 들여다 놓으면서 다음 체력 검사때에는 꼭 1급을 따야지, 하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의 건강인 우유에게 감사하면서…….

